



##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대전 성모여고 2학년  
한경아

우리가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많이 들어보았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가가기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5·18당시의 시대 배경이라던가 원인, 결과 등 우리는 교과서

의 일부분만을 암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 중 3때, 평소와 같았던 국사 시간. 선생님께서는 5·18에 관한 파워포인트

를 보여주셨다. 생각지도 못 했던 끔찍한 장면의 사진 그리고 알지 못 했던 사실들. 5·18민중항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던 나에게도 울분이 터져 나왔다.

난 왜 저 사실을 알지 못 하고 있었을까? 난 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찍 알지 못 했던 것일까? 지금 나는 역사캠프에 와서 그 생각들을 다시 되짚어 보고 있다. 처음 와 보는 광주 그리고 열사들이 계신 묘지……. 모든 것들이 생소했지만 사진에서 봐 왔던 것들이 많아서 친숙해 보이기도 했다.

두 손으로 알을 받치고 있는 탐은 가장 인상에 남는 것 중의 하나이다. 나는 그저 민주화를 위해 운동했던 사람들만이 피해를 입고 많이 다치셨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무력하고 순진무구한 민중들을 해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핏줄이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전남여성에서 본 연극은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많았다. 학생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연기에 진심으로 박수가 터져나왔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 만큼 소중한 체험을 한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새롭게 인식하는 시각을 길러야겠다.

##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아



양산 효암고 3학년  
문중현

교과서에서만 본 5·18민중항쟁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 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난 5·18민중항쟁을 그저 군사독재에 맞선 사건이라고만 알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차가운 빗물이 창문을 때리며 피곤한 몸을 의자에 맡기고

5·18묘지에 도착할 때까지 잠을 청했다. 하늘은 항쟁 때 숨을 거둔 이들이 생각나는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탄 버스는 5·18묘지에 도착했다.

말을 못 해 저항 한번 못 하고 돌아가신 김경철님, 부상당한 시위대를 위해 헌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신 박금희님, 남편을 기다리다 봉변을 당한 최미애님…….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손에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보니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들은 그분들을 뒤로 한 채 박금희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을 보러 갔다. 수준 있는 전남여성 연극부 덕분에 그 내용은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았다. 군사독재에 맞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북한에서 보낸 빨갱이라고 속이고 길거리의 시민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도 학생, 아줌마, 아저씨, 남녀노소 누구나 앞장서서 피를 흘려야 했던 1980년 5월 당시, 수혈할 피가 모자란단 말에 병원에 가 헌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퇴각하던 계엄군의 충격에 숨을 거두신 박금희님. 정부가 준 5천만 원을 받고 눈물 흘리며 나라를 미워하셨을 어머니, 자신들이 하지 못 한 일을 한 친구를 그리워하며 몰래 생일파티를 해 주는 친구들……. 그 누가 이들의 한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는가!

예전의 나였다면 재미없는 이야기로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연극을 보는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나마 슬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니 그저 내 몸 안 어딘가에서 복받쳐 나온 감정일지도 모른다.

오늘, 피곤한 하루였지만 뜻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가슴 속에 민중항쟁 당시 돌아가신 분들을 잠깐이라도 모셔보면서 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란 말이 있듯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나도 불의에 맞서 피를 흘릴 수 있을지 내 자신에게 물어 본다.

## 부끄러우면서 두려운 점도 있어

솔직히 나는 5·18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역사캠프를 통해 5·18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직접 느끼지 못 했던 것도 실감나는 연극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참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



해남 황산중 3학년  
박대환

로는 부끄러웠다. 나라끼리의 싸움도 아니고 나라 안에서의 대립 때문에 이렇게 큰 항쟁이 터진 것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두려운 점도 있다. 우리의 과거는 모두 역사이다. 10분 전의 일이라도 그 일이 역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언제 또다시 이러한 항쟁을 겪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의식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또다시 독재정권이 생겨 날 것이고 똑같은 항쟁이 되풀이 될 것이다.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를 통해서 민주주의 의식을 느끼고 5·18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야 할 것이다.



자포자기 하게 되었다. 짜증도 나고, 넘어뜨린 사람 욕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참고 인내해야만, 모두가 집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임할 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참 민주주의 정신이 아닐까!

다음날 아침, 우리 학교는 일찍 일어나 전날 가지 못 했던 5·18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지금의 이 자유로운 민주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노력한 삶들이 많이 묻혀 있었다. 그 중에 박금희 라는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우리 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던데……. 자기 권력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앗아 가다니…… 그 권력을 잡기 위해 지시한 사람도 나쁘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곤봉으로 때린 군인들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여러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위해 싸워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어렵게 일구어 주신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 하는 우리가 죄송스러웠다. 견학이 끝난 뒤,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밤에 말 타기도 하고 진짜 재밌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캠프, 더 많은 것을 보고 돌아가려 한다.

## 참 민주주의 정신



울산 중앙여고 1학년  
장영은

처음에 민주화 캠프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캠프일지 막연했다. 하지만 뭘지 모를 힘에 이끌려 토요일,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출발했다. 울산에서 광주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부푼 기대에 그리 멀리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학교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처음부터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저녁을 먹고 강당에서 도미노 게임을 하였는데 완성됐다 싶으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다른 조들은 하나 둘씩 완성해 가는데, 우리 조는 끝날 줄을 몰랐다. 연결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던지 마지막에는 거의 모두가 될 대로 되란 식으로